

1. 구원의 목적

2.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인간의 영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 구원한다

3.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목적하고 구원한다

본 문 마태복음 22장 37-40절
 고린도전서 15장 51-5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과 신입 교인들을 위해 말씀하며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인생들을 구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억 천만금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게 되고, 질서 있고 쉽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스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믿게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하며, 흔히 이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생이 종전에 기성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와 같이 배우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보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근본’을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잘 듣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행하면서 믿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100배나 더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본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 차원에 맞는 구원자를 보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그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자를 따라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들이 지옥에 안 가게 구원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명도 지옥에 안 가게 됩니다.

지옥이 왜 생겼습니까? 천사장 루시엘은 인간 창조를 반대했습니다.

왜 인간 창조를 반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여, 인간의 육을 통해 그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 위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영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려는 뜻을 두고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천군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부의 입장으로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로 창조되었기에, 루시엘은 인간 창조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담과 하와를 꾀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고로 사탄 루시엘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깨졌습니다. <끝>

인간 창조로 인해서 천사장 루시엘이 시기 질투했고, 그로 인해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로 인해 지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안 가게 구원만 하려 했다면, 아예 지옥이 생기지 않도록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지옥에 안 가게 구원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망의 세계에서 인간의 육과 영을 구원해 놓습니다.

구원만 해 놓고, 이제 지옥에 가지 말고 사망 흑암으로 가지 말고 잘 살라 함이 아닙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살면서 육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육의 삶에 따라서 그 마음도 혼도 영도 점점 변화되고, 그 영이 천국에 속한 영으로 변화되어 만들어지면서, 천국에 와서 삼위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의 목적’을 두고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끝>

새로 온 사람들은 ‘영’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사람은 누구나 육 - 혼 - 영으로 존재합니다.
지상에서 돌아다니며 삶을 사는 자는 ‘자기 육’입니다.
잠을 잘 때, 꿈에 자기가 돌아다니지요? 이것은 ‘자기 혼’입니다.
‘혼’은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입니다.
고로 자기가 마음먹고 생각하는 대로 혼이 활동하게 됩니다.

마음·정신·생각이 없으면, 육신도 움직일 수 없고 살 수가 없지요?
고로 ‘혼’은 육신의 핵심체입니다.
혼 위에 ‘자기 영’이 존재합니다.

‘혼’은 땅에 속한 존재체입니다.
‘영’은 하늘에 속한 존재체입니다.

육이 죽으면, 육신의 핵인 ‘혼’이 자기 ‘영’과 일체 되어 영의 세계로 갑니다. <끝>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삼위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살면, ‘영’은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영체로 변화됩니다. 마치 어린 소녀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듯이, 어린 소년이 멋진 남자로 변화되듯이 ‘영’도 그렇게 됩니다.

온전하게 변화된 ‘영’이 성자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인간 창조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땅에서는 육으로, 천국에서는 영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두고, 과학적으로 볼 때 137억 년의 시간을 들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은 인간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잘 살라 함이 아닙니다. (기본 제스처)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땅에서 ‘육’도 ‘영’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육’은 땅에서 살 동안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고, (육은 육신을 만지기)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 ‘영’은 성자를 맞고 천국으로 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 함입니다. (영은 천국으로 가는 표현하면서, 기본 제스처로 마무리)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인간이 구원만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행여 천국에 가더라도 영원히 적적하고 쓸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고로 ‘사랑’이 없으면 아예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메시아를 보내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게 하여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체로 만든 영만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100% 사랑하지 않고 휴거되어 천국에 가는 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구원만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삶과 신앙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이 파선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100%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100%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마저도 못 합니다.

신부로서 ‘사랑의 신앙’을 못 하면, 그 영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모두 자기 육이 지상에서 행한 그 차원대로 그 영이 천국, 낙원, 선영계,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끝>

새로 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왜 자기를 불러왔는지 깨닫고, ‘목적’을 알고 그같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1차 목적입니다. <근본의 목적>은 인간의 육을 통해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마치 열매를 열지 못하는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과일나무는 육이라면, 열매는 영입니다. 열매를 열지 못하는 과일나무는 키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고서 절대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단지 육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즐거운 것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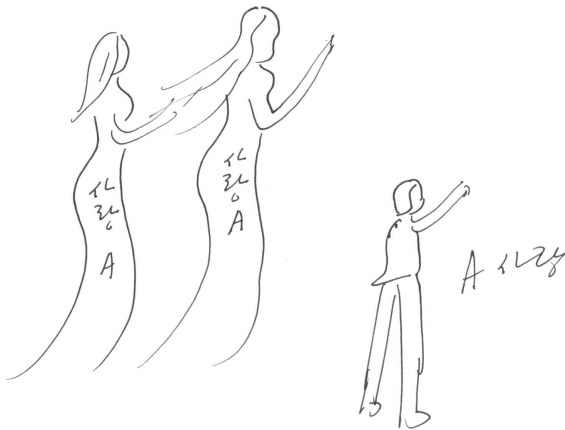
이제 구원의 근본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성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5>

<성자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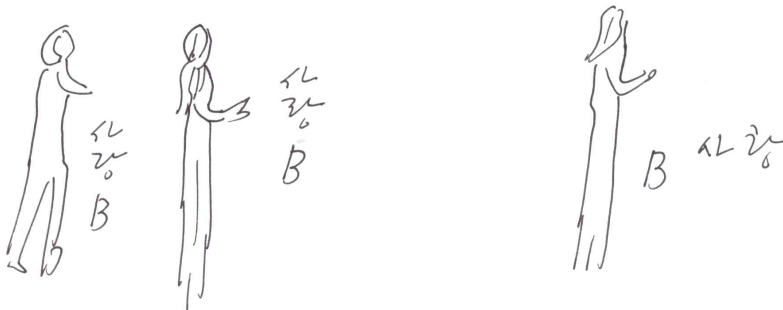
‘사랑’을 목적인 자는 사랑밖에 안 보이고, 사랑하는 자의 말만 들리고, 사랑의 행동만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 내 분체도 그러하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인류의 맨 마지막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고로 ‘사랑’ 때문에 구원하고, ‘사랑’ 때문에 돕고, ‘사랑’ 때문에 영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 사랑은 하늘과의 사랑이다. (기본 제스처) <끝>



(왼쪽 두 사람은 영 / 오른쪽 한 사람은 육이다. - ‘휴거된 영’)



(왼쪽 한 사람은 육 / 오른쪽 두 사람은 영 - ‘휴거되지 못한 영’)

사람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최고로 사랑해 주면서 만족하며 살듯, 사랑의 근본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 그러하다. 고로 세상에서 하늘 앞에 최고 사랑의

기준을 세운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내보낸다. 그가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듯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며, 시대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게 하여 구원한다.

나 성자가 택하여 세상에 보낸 자가 전하는 ‘하늘의 시대 말씀’은 그가 조건을 세워서 받는 말씀이며, 또 그가 삼위를 사랑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다. 사람으로서 자기가 삼위가 원하는 최고의 사랑의 삶을 산 것이 그리도 크다.

구원자는 왜 인생을 구원하러 왔는지, 자기가 행해 왔기에 자기 행함으로 안다. 고로 그는 구원하러 온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르친다.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외쳐,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여 하늘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워 복직하게 한다.

또한 구원자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된다.

섭리역사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종교 역사의 목적’을 이루면서 <휴거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짜로 지금 하고 있다. 가짜가 아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섭리역사는 단지 ‘구원’만 받으려고 진행하는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섭리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알고, 선악과와 원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성자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워 그 비밀을 밝히는 자가 있으니 사랑의 뜻과 창조 목적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고로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늘과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게 된다(계 20:1-6).

내 분체가 인간으로서 큰일을 한 것이다. <인간 책임분담>을 한 것이 그리도 크다. 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나 성자가 늘 지켜보았다. 어떻게 행하는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성경을 얼마나 근본으로 푸는지, 예수를 하나님같이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았다.

전쟁터에 갔다 놓았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을 총으로 쏘지 않고, 또 적을 일순간에 멸하여 명예를 얻을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원수 사랑하는 조건을 100% 세우며 산 모든 것을 보았다. 적을 그냥 놔두면 자기가 죽는데, 적을 안 죽일 자가 어디 있겠느냐? 100% 사랑한 것이다.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과 무참하게 짓밟고 악평하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시대의 조건을 세우며 사는 것을 보았다.

성경을 이뤄야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 하는 자가 된다. <끝>

모두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먼저는 내 육과 일체 되어 살고, 그로 인해 나 성자와 일체 되어 살자. ‘사랑 일체’다. 내 육과 일체 되고, 나 성자와 사랑 일체 돼야 나 성자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뜻을 이루어 ‘휴거의 영’이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내 분체가 진정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해야 신앙이 살아서 영원히 승리한다.

<휴거>는 ‘완전한 사랑’으로 된다. 일부의 사랑으로는 휴거되지 않는다. 천국은 온전한 사랑의 세계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일부만 사랑하고, 그 온전치 못한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 (기본 제스처) 절대 온전한 사랑으로 믿고 섬기고 행해야 된다.

또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필수다. 고로 자기 죄를 100%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게 살아야 나의 신부가 되어 휴거되어 천국에 온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안 된 것이 있다. 자기 혼이 확인하도록 기도해 보아라. 죄를 숨기면, 죄가 자기를 멸망시킨다. 메시아를 모르고 회개한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절대 내가 보낸 자를 100% 확실히 알고 믿고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사랑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를 사랑하는 성자다. 샬롬!

<축 도>

지금은 사랑의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오시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성자의 크신 사랑과, 베드로처럼 진정 100% 깨닫고 시인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